2025 1st EXHIBITION

2025 1회 전시

한국영상학회 협력전
네이처 프로젝트전
미디어아트 작가 전시

3.21. - 6.19.
18:00 - 23:00
서울시 중구 만리재로 215

배준형, <끝없이 춤추는 우리>

[서울로미디어캔버스]

2025 1회 전시

서울로 미디어 캔버스는 미디어 아트 신진 작가들의 플랫폼으로, 그동안 많은 영상 작가들을 배출해 온 공간이다. 미디어 아트라는 생소한 분야를 회화 작품이 캔버스에 그려지듯 미디어 캔버스에 담아내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공 미디어 아트의 영역을 확장해 왔다.

2025년 1회 전시는 '한국 영상학회 협력전', '네이처 프로젝트전', '미디어아트 작가 연계전'으로 구성된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32개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한국 영상학회 협력전'은 『빛결』이라는 주제로 존재와 시간의 흔적을 빛의 흐름으로 풀어낸 전시이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기억을 연결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관객은 전통적인 자연의 빛과 인공적인 디지털 빛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며, 기술과 자연의 공존을 성찰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네이처 프로젝트전'은 2024년 네이처 프로젝트 공모에 당선된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이다. '자연'과 '사계절'을 주제로 한 프로젝트로, 작가들의 독창적인 예술적 시선을 통해 자연의 의미를 새롭게 탐색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유미, 박준혁, 로칸킴(김종혁), 전승일, 조태성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한다.

'미디어 아트 작가전'은 티안 작가의 개인전으로, 2023년 영국 왕립 웨스트 아카데미(The Royal West of England Academy) 전시에 당선된 작품을 포함하여 'Magnolia Trilogy'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티안 작가는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기억을 빛으로 표현하며, 중심 소재인 목련을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AI 시대의 새로운 상징으로 재해석하였다. 1부 「목련의 속삭임」에서는 조선시대 목련이 지닌 전통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과거의 빛으로 표현하였다. 2부 「목련 해체」에서는 현대 사회가 자연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과정을 빛의 파편화된 선으로 나타내며, 목련의 원형이 디지털로 분해되는 모습을 시각화하였다. 마지막 3부 「AI 목련: 디지털의 개화」에서는 AI와 빅데이터로 재구성된 목련을 미래적 빛으로 표현하며, 목련이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담아냈다. 관객들은 자연의 빛과 디지털 빛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은 빛과 자연, 기술과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다채로운 미디어 아트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사)한국영상학회 협력전
KOSMA Cooperation Exhib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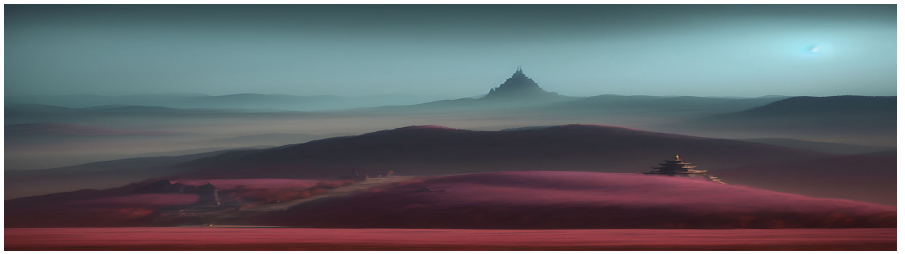
KOSMA The Korean Society of Media & Arts 한국영상학회

강희원	백주미	이상은	전성재
김원화	서동희	이원희	조현일
김혜경	오영재	이정은	최호정
김혜란	유미	이지혜	Kent Tate
박성환	유장우	이지희	KE RONGHUA (Team IVAS)
배준형	이규동	이혜리	Mike Enright

강희원
Kang Heewon

자연의 환상, Fantasy of Nature | Single Channel Video, 00:3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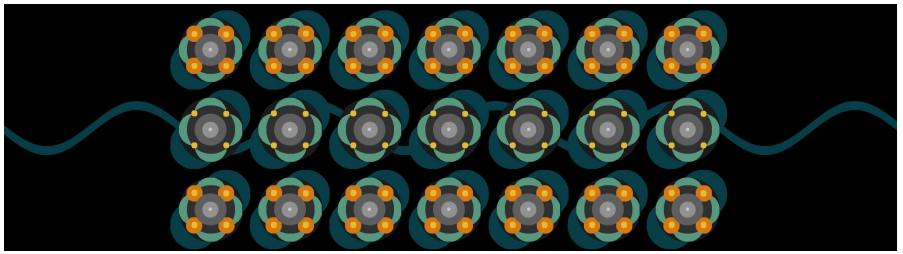
현시대에서 사람들은 항상 미디어를 소비하면서도 힐링, 휴식을 위해 자연을 찾곤 한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환상적 세계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며, 우리는 자연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한다.



김원화
Kim Wonhwa

Scapel Lapse2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3,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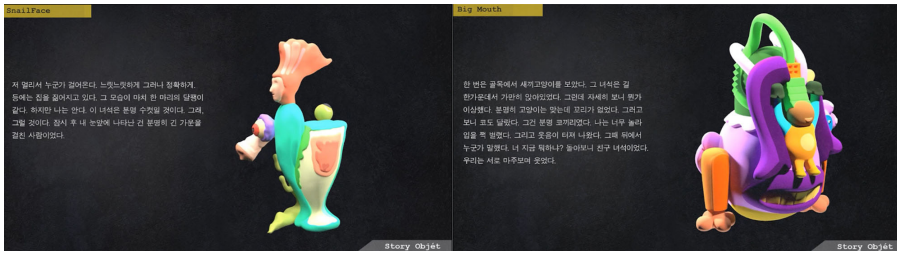
<Scape Lapse 2>는 도시 중심의 산을 배경으로 고생대부터 2100년 미래까지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탐험하는 애니메이션 작품이다. 시대별 건축, 생태계, 기후, 교통수단의 변화를 서서히 겹치는 시공간적 흐름으로 표현하며, 자연과 도시의 공존, 문명의 진보를 담아낸다. AI 기반 영상 기법을 활용해 시간의 축적과 공간의 변형을 실험하며,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유기적인 풍경의 진화를 보여준다.



김혜경
Kim Hyekyung

기억의 물결, wave of memories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본 작품은 물결처럼 다가와 서서히 사라지는 감정이나 기억을 상징적으로 담은 것으로, 선, 사각형, 원형 등 기본 조형 요소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시각적 표현을 하였으며, 간결한 형태의 다양한 변주를 통해 한국 전통의 정서를 새롭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김혜란
Kim Hyeran

스토리 오브제, Story Objet | Single Channel Video, 00:52, 2025

스토리오브제는 원래의 기능과 특성에서 벗어난 형상의 부분들로 하나의 캐릭터를 위해 합쳐진 것으로 이들의 이미지와 세계관을 구축해 보고자 만들어진 작업의 일부이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하여 가상 세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오브제가 변화되고 독립적인 리얼리티를 구성해 가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준다.

박성환
Park Seongwhan

뉴발란스; 손상된 신발, New Balance; Broken Shoes | Single Channel Video, 01:20, 2025

나에게 신발은 복수의 차원을 상상하게 하는 오브제이다. 신발은 해체와 재조립의 재미있는 놀이로 시작해서 나의 내면과 외부 세계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하는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뉴발란스'는 유명한 운동화 메이커의 상표명이면서 동시에 단어 뜻 그대로 '새로운 균형'을 의미하는데, 작품 <신발-뉴발란스>는 이러한 설정을 토대로 그것의 실재적인 행로를 탐색하는 작업이다. 영상에서는 해체된 신발들, 지도들, 그리고 출입구(gateway) 등이 함께 어우러지며 일반적인 상식에서 조금은 빗겨나간 '균형'의 상태를 보여줄 것이다.

배준형
Bae Joonhyung

끝없이 춤추는 우리, Endlessly Dancing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12, 2025

<끝없이 춤추는 우리>는 밝고 다채로운 영상 안에서 반복적인 춤사위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은유한다. '우리(we)'이자 '우리(cage)'라는 이중적 의미 속에서, 제한된 환경 안에 공존하는 생명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성찰을 유도한다.

백주미
Paik Joomee

Heterochromia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Heterochromia는 두 눈의 색이 다른 이색증을 뜻하며, 그리스어 'heteros'(다른)와 'chroma'(색)가 결합된 단어이다. 작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며, 서로 다른 색, 생각, 이념을 지닌 개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전체를 이루는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서동희
Suh Donghee

일상, Routine | Single Channel Video, 00:45, 2025

본 작품은 '하루'와 '일상'에 대한 생각을 3차원 공간에 표현한 것이다. 즐겁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는 하루를 형태로 표현하였다.

오영재
Oh Youngjae

Fortune_Episode 1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Fortune_Episode 1>은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적의 그래픽을 현대적 조형 언어로 재해석한 작업이다. 부적 그래픽의 재해석을 통해 전통 부적이 지닌 형상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유미
You M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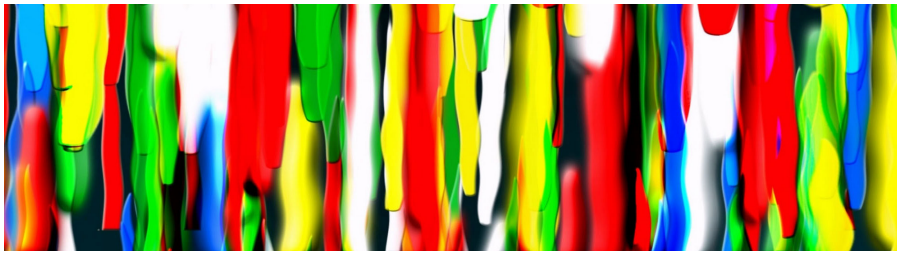
흐르고, 서고, 자라고, Flow, Stand, and Grow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흐르고, 서고, 자라고>는 흐름과 단단함 사이에서 피어난 가족의 사랑과 성장을 담은 짧은 여정이다. 바다는 어머니처럼 끝없이 흐르며 가족을 품고, 산은 아버지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가족을 보호한다. 바다의 흐름에서 시작된 새로운 가능성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따뜻한 대지는 가족의 중심을 잡아주며 사랑을 전한다. 이 작품은 각기 다른 네 가지 기운이 모여 하나의 가족을 이루고, 서로를 단련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은 전통적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가족의 유기적인 관계와 균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포스트 오리엔탈리즘적 작품이다. AI 기반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 요소와 상징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가족의 사랑과 성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아름답고 독창적으로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탐구해 온 작가의 연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가족과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시도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꿈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장우
You Jangwoo

데이터 스케이프, Datascape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데이터스케이프>는 서울의 장소성을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파운드 푸티지 영상 작업이다. 전통적인 카메라 촬영 방식에서 벗어나 센서를 활용한 시각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라이다(LIDAR)와 열화상 카메라로 포착된 이미지는 서울시의 3D 디지털 트윈과 결합한다. 이를 통해 서울의 물리적 풍경과 그 추상적 표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의해 새롭게 해석되며, 미디어가 우리의 시각과 인식을 어떻게 형성하고 변형하는지를 탐구한다. 이 작업은 실제 도시 공간과 디지털 재현 사이의 경계에서 서울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조명한다.



이규동
Lee Kyudong

기쁨의 흐름, joy dripping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35, 2025

삭막한 도시 속에서 형형색색의 잉크가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 일상에 숨어있는 기쁨이 방울져 떨어지듯 도시 곳곳에 스며드는 순간을 표현했다. 영상 속에서 번져가는 색채는 회색 건물 사이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즐거움을 상징하며, 방울져 떨어지는 모습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행복의 조각들을 시각화했다. 이 작품은 복잡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흐름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서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 순간들이 쌓여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가는 과정을 느끼게 한다.

이상은
Lee Sange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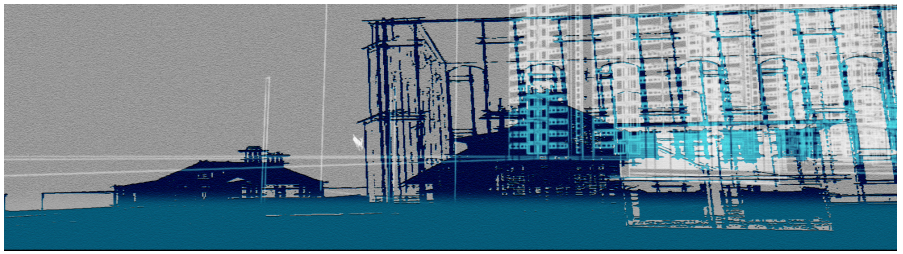
시간의 집적 20251, Accumulation of Time 20251 |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5

<시간의 집적 20251>은 시간의 지속과 소멸, 집적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미디어 스크린으로 옮겨와 선보이는 영상 작업으로, 선과 색으로 표현된 기억과 경험의 파편들은 수많은 붓질을 통해 서로 쌓이고 스치면서 화면 안에서 시간의 집적을 표현하고 있다.

이원희
Lee Wonhee

파란기억 여행 3, Traveling blue memory 3 |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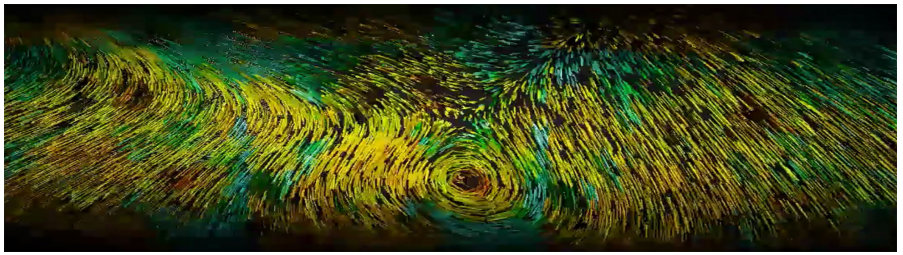
창 너머 아른거리는 풍경, 희미하게 빛바랜 기억들. 시간의 강물에 씻겨 내려가는 기억들은 푸른 자국을 남기고, 나는 그 '파란 기억' 속을 유영한다. 선명함과 흐릿함이 공존하는 '파란 기억' 속에서 '나'를 빚어낸 소중한 기억들과 마주하며 나만의 기억들과 마주한다.



이정은
Lee Jungeun

도시풍경_2502, cityscape_2502 |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5

어떤 공간에 생명이 등장하고 삶이 영위되고 대를 넘어 문화와 기억이 전승된다면 그곳은 하나의 장소가 된다. 현대에는 장소는 계속 지워지고 그 자리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 몰 장소성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도시공간에 투영되어 살아나는 그리드로 만들어진 환영과 내재된 리듬을 연출하는 작업을 통해, 기억과 신화가 있는 장소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지혜
Lee Jihye

밤하늘 아지랑이, Flowing Nightsky | Single Channel Video, 00:59, 2025

밤하늘을 일렁이고 출렁거리는 아지랑이처럼 표현하여 화려한 도시 속 밤하늘의 인상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지희
Lee Jeehee

자연의 반향, Wild Echoes | Single Channel Video, 01:05, 2025

시공간 안에서 긴 호흡으로 삶과 소멸을 반복하며 연속성을 유지하는 자연 속 식물과 가상 세계에서 생성되는 생물체를 함께 보며 새삼 존재의 의미와 창조의 과정이 무겁게 다가온다.

이혜리
Rhee Hye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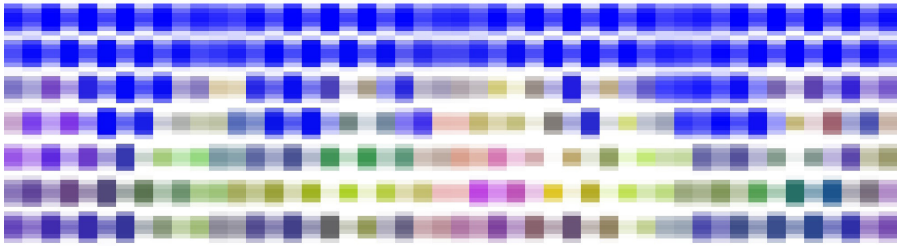
달빛, Moonlight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2:30, 2025

달빛의 멜로디가 밤하늘을 흐르고, 별빛과 함께 춤추며 부드럽게 빛나는 모습, 고요한 파도에 드리운 달그림자, 오늘 밤 잠든 세상을 부드럽게 껴안아 본다. 은빛 물결이 조용히 속삭이고, 꿈속 같은 숲속에서 빛나는 길들, 달빛의 꿈, 영원의 순간들처럼, 우리를 밤의 품으로 인도한다.

전성재
Jeon Seongjae

1984, 그 이후 , After 1984 |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5

<1984, 그 이후>는 조지 오웰의 '1984' 이후 변화한 인간상을 탐구하는 작품이다. 감시는 억압에서 자발적 노출로 변했고, 우리는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며 네트워크에 종속된다. 현실보다 디지털 환경을 우선하며, 정보 과잉 속에서 반응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작품은 기술 발전 이후 인간의 자유와 주체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다.



조현일
Cho Hyunil

몽상의 댄스, Dance of Reverie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인간의 감각과 운동성이 미디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시각적으로 실험하는 작품으로, 인간의 움직임이 추상적 패턴으로 파편화된 데이터 조각들과 함께 끊임없이 재구성된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흐릿해진 이 가상적 풍경 속에서, 인지구조의 왜곡이 미디어의 환영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체험하게 된다.

최호정
Choi Hojung

초월하는 경계, Transcending Boundaries | Single Channel Video, 00:58, 2025

미디어는 현실을 재구성하며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고 왜곡한다. 질서처럼 보이던 구조는 붕괴하고, 흩어진 정보들이 결합하며 새로운 형태를 만든다. 혼란과 재조립이 반복되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변형된 세계가 생성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닌, 현실 자체를 창조하는 거대한 흐름이 된다.

켄트 테이트
Kent Tate

공생: 움직이는 이미지, Symbiosis | Single Channel Video, 01:00, 2025

공생은 두 개 이상의 다른 생물학적 종 사이의 긴밀하고 장기적인 연합으로 정의된다. 이 관계는 공생적(상호주의적)일 수 있는데, 이는 관련된 두 당사자가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이고, 기생적(한 당사자는 이익을 얻고 다른 당사자는 피해를 입는 경우) 일 수 있다.

커롱화 (Team IVAS)
KE RONGHUA(Team IVAS)

비트 이후 인류의 풍경-영남화파 기반 AI 시각 전이,
Post-Bit Human Landscape - AI Visual Translation of Lingnan Painting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4

<비트 이후 인류의 풍경 - 영남학파 기반 AI 시각 전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지역 문화 속 전통적인 시각 언어를 디지털 방식으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실험적 예술 작업이다. 이 작품은 기술과 문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탐색하며, 전통적 미학을 현대의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창작 과정에서는 커롱화의 작품 <타향의 돌>이 핵심적인 시각 요소로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AI가 재구성한 풍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 전통과 기술이 새로운 방식으로 공존하는 모습을 제시한다. 본 작품은 지속적인 연구와 창작을 통해 디지털 미학이 제기하는 다양한 담론을 탐구하고 있으며, 전통적 미의식과 현대 AI 기술이 융합될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비트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과 기계, 자연과 인공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풍경을 탐색하며, 동양 미학이 디지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자 한다.

마이크 엔라이트
Mike Enright

Icarus Too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00, 2025

<이카루스 투>는 늦은 오후 햇살에 흠뻑 젖은 하늘과 추락하는 어두운 바닷속에서 날아오르는 여정을 담고 있다. 소스 파일은 전통적으로 사냥감과 인간이 하강하는 고리 모양의 애니메이션 새들이다. 애니메이션 형식은 제작의 다양한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드러나며, 인식할 수 있는 것과 추상적인 것 사이에 긴장감을 조성한다.

네이처 프로젝트 공모 선정 전시

NATURE PROJECT

박유미

박준혁

로칸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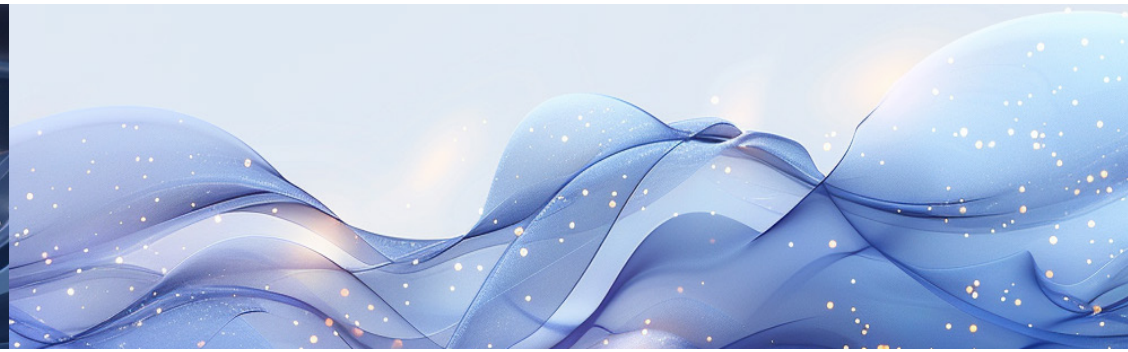
전승일

조태성

박유미
Park Yumi

바다와 땅의 삶, A Life on Sea and Land | 2 Channel Video, Sound, 05:25,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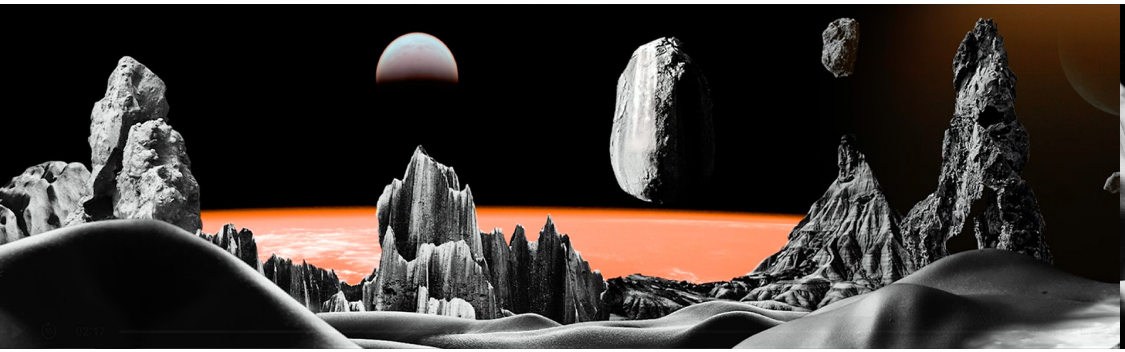
<바다와 땅의 삶>은 <어부 漁婦>와 <나의 속도#3>를 짧게 압축한 비디오로서 작가와 10년 이상 밀착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여성 어부의 존재와 그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응시한다. 어부 漁婦라는 단어는 자연스럽게 여성을 지우고 여성에게 금기시되는 일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여성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조종하는 롤러를 다루는 대체 불가한 일부터 조업에 관한 모든 일에 관여하는 사람이다. <어부 漁婦>는 여성, 노동, 생태에 관한 풍경을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기반 작업으로 젠더, 직업, 나이, 지역으로 경계 지어지지 않는 한 어부(漁婦)의 존재를 조명하고자 했다. 2채널로 동시에 보이는 <나의 속도#3>은 201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연작 중 하나로 <어부 漁婦>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아차도 마을의 풍경에 작가의 고유한 생태 감수성과 장소 감수성의 시선을 담아낸 작품이다.



박준혁
Park Junhyuk

물들다, 물흐르다, 물들이다., water, later, beter.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1:12, 2024

물의 흐름과 연관된 생태적 메시지와 물의 움직임을 통해 자연의 순환성과 생명의 연결성을 찾아보려고 했다. 물이 가진 유동성, 투명성, 무한한 변화를 예술로 형상화하며 물의 움직임을 상징하는 추상적인 형상과 빛의 변화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작가가 생각하는 물의 소리, 색감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연의 다양한 양상을 담아낸다. 물의 물리적 속성과 시각적 아름다움을 디지털 기법을 사용해 표현하며 자연 현상의 움직임을 추상적 표현기법으로 리드미컬하게 연출하고 있다.



로칸킴
ROKKAN KIM

SPACE ODDITY | Single Channel Video, Sound, 05:01, 2024

SPACE ODDITY 연작은 7살 때 아빠와 함께 본 스타워즈5에서 시작된 우주에 대한 꿈을 담고 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은 사라졌지만, SF 영화와 우주비행사를 다룬 매체의 기억을 간직해왔다. 미디어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삶은 영웅화되어 있고 화려하게 그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고통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 속에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인류는 우주에 더 가까워졌다. 아름답지만 위험한 우주를 향한 우주비행사들의 여정은 앞으로도 인류와 함께 계속될 것이다. 찰리 채플린의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은 어쩌면 그들의 삶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전승일
Chon Seung-il

트리, Tree | Digital Animation, Sound, 3.8:1, 04:05, 2024

<Tree>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회화작품을 발표하며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리얼리스트 화가 김경렬 작가의 '나무그림' 연작을 원작으로 하는 영상미디어아트이다. 본 작품은 김경렬 화백의 유화 작품을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 파일로 전환하고, 이를 디지털 영상 프로그램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동영상으로, 확장적으로 생성(generation)하는 방법을 통해 제작되었다. 즉,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그의 작품 세계와 미적 이상을 새롭게 예술적으로 탐구한 미디어아트 작품이다. <Tree>의 영상 연출 컨셉은 계절과 함께하는 잔잔하고 따뜻한 느낌의 신비로운 감성이다. 그리고 시적(詩的) 이미지텔링을 통해 작가의 아트웍과 예술 철학을 영상에 담고자 노력했다. 그의 그림은 캔버스 천에 있지만, 그의 작품의 예술미는 우리의 정신세계에 큰 울림을 준다. 그 메시지는 영화의 엔딩 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숲에서 인간을 본다.
나무는 인간의 초상이기에 그들을 느끼고 대화를 한다.
나는 자연에서 인생을 배운다."

조태성
Jo Taesung

다이노스트리 아일랜드, Dinostree Island | Simple Channel Video, Sound, 03:10, 2024

1억 년의 세월 동안 지구를 지배해 왔던 공룡의 영혼이 꽃과 나무에 깃들어 다시금 피어난다. 식물과 공룡의 조화, 다이노스트리. 무성한 줄기와 단단한 뿌리는 공룡의 사지를 지탱하고, 화려한 꽃과 이파리는 공룡의 피부를 덮는다. 달콤하고 싱그러운 냄새에 함부로 이들에게 입을 대다간 무사하지는 못할걸. 사시사철 피어나는 공룡들의 섬, 다이노스트리 아일랜드.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이 공존하는 이곳. 꽃향기와 함께 공룡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 이곳에서는 지금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다이노스트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봄에는 화사한 꽃잎으로 꾸민 벚나무 스테고사우루스, 여름에는 열대우림의 기운으로 쑥쑥 자라난 야자수 브라키오사우루스, 가을에는 울긋불긋한 단풍나무 티라노사우루스, 겨울에는 크리스마스처럼 따스한 구상나무 매머드. 그리고 이 섬을 지배하는 참나무 트리케라톱스까지.

자, 세상을 돌아다니는 나그네인 썩소마우스와 나상어와 함께 이 식물 공룡들의 섬을 탐험해 보자.
새로운 만남이 두근두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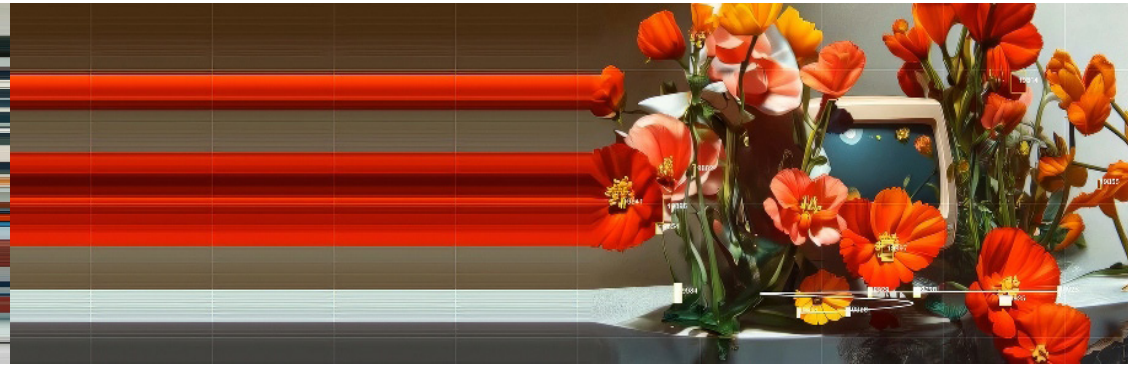
미디어아트 작가 연계 전시
MEDIA ART X Artist

티안 Tahn

Magnolia Trilogy | Single Channel Video, 15:01, 2023-2025

『빛결』은 존재와 시간의 흔적을 빛의 흐름으로 풀어낸 전시이다. 빛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과 존재의 기억을 연결하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 본 전시의 중심 소재인 목련은 전통과 현대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AI시대의 상징으로 재탄생한다. 관객은 전통적인 자연의 빛과 인공적 디지털 빛이 교차하는 공간에서 시간과 존재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기술과 자연의 공존을 빛의 시선으로 성찰하게 된다.

1부 「목련의 속삭임」



티안 Tahn

목련 3부작은 목련을 중심으로 전통에서 AI 시대로의 변화를 탐구하는 연속적 흐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부 「목련의 속삭임」에서는 조선시대 목련이 지닌 전통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과거의 빛으로 그려내며,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

1부 「목련의 속삭임」

티안 Tahn

목련 3부작은 목련을 중심으로 전통에서 AI 시대로의 변화를 탐구하는 연속적 흐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1부 「목련의 속삭임」에서는 조선시대 목련이 지닌 전통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과거의 빛으로 그려내며, 시간의 흔적과 기억을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표현한다.

2부「목련 해체」

티안 Tah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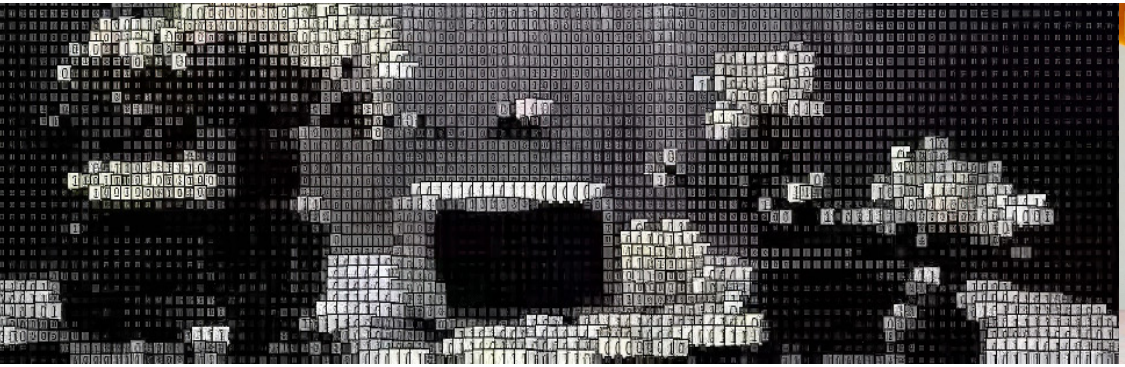
2부「목련 해체」는 현대 사회가 자연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과정을 빛의 파편화된 선으로 나타내며, 목련의 원형이 디지털로 분해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이는 아름다움의 소비와 기술적 편리함의 이면을 드러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고찰하게 만든다.

2부「목련 해체」

티안 Tahn

2부「목련 해체」는 현대 사회가 자연을 분석하고 해부하는 과정을 빛의 파편화된 선으로 나타내며, 목련의 원형이 디지털로 분해되는 과정을 시각화한다. 이는 아름다움의 소비와 기술적 편리함의 이면을 드러내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재고찰하게 만든다.

3부 「AI 목련: 디지털의 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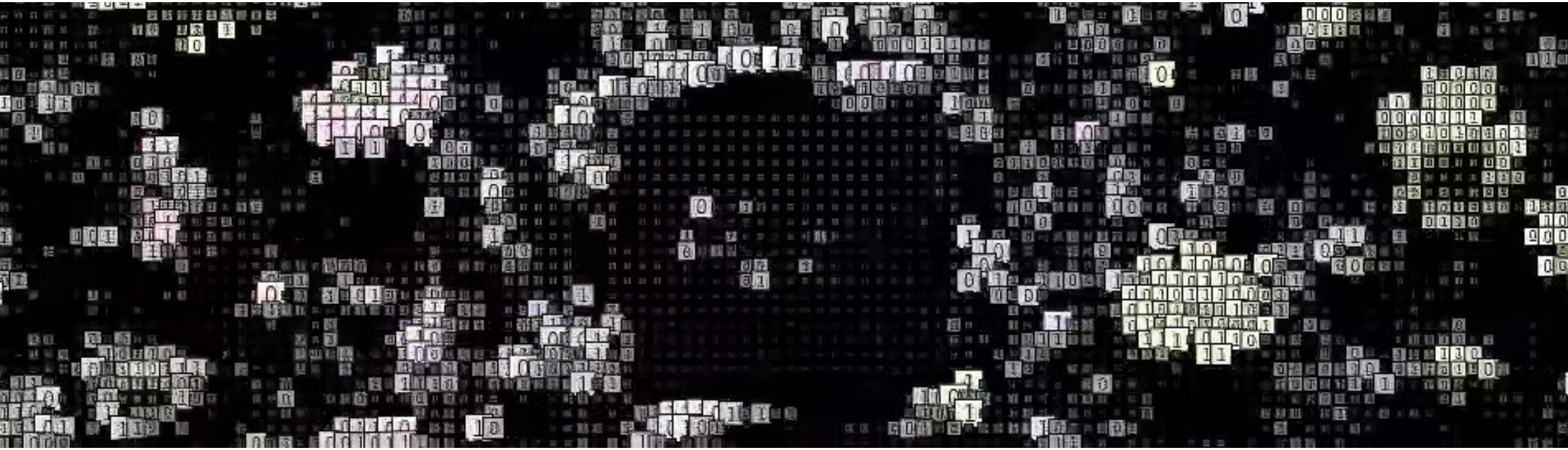


티안 Tahn

마지막 3부 「AI 목련: 디지털의 개화」는 AI와 빅데이터로 재구성된 목련을 미래적 빛으로 표현하며, 목련의 의미가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담았다. 관객은 이 과정을 통해 기술시대 목련이 지닌 새로운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목련 3부작은 전통에서 시작된 자연의 아름다움이 디지털 빛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시대적 의미로 진화하는 여정을 그려낸다.

3부 「AI 목련: 디지털의 개화」



티안 Tahn

마지막 3부 「AI 목련: 디지털의 개화」는 AI와 빅데이터로 재구성된 목련을 미래적 빛으로 표현하며, 목련의 의미가 디지털 데이터로 재탄생되는 과정을 담았다. 관객은 이 과정을 통해 기술시대 목련이 지닌 새로운 상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결국 목련 3부작은 전통에서 시작된 자연의 아름다움이 디지털 빛의 흐름을 따라 새로운 시대적 의미로 진화하는 여정을 그려낸다.

오시는 길

중림동, 만리동 방면 집입(서울로 종점부에서 진입)

지하철

충정로역(2,5호선) 5번 출구에서
약 500m 이동

버스

손기정체육공원입구 (02-102)
손기정체육공원입구 (03-228)
간선 : 173, 261, 463, 604, N16
마을버스 : 용산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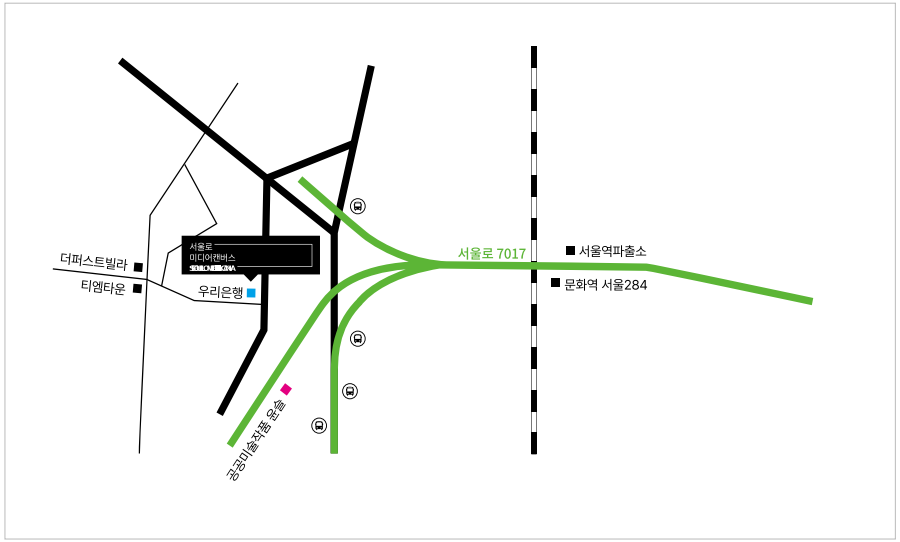
참고하세요

서울로 5번 출입구 쪽으로 이동하시면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에 설치된 미디어캔버스 전시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올라오시는 방법

엘리베이터 1호기 이용

우리은행 중림동 지점 앞 만리동관장, 쉼터 방면



발 행 일 2025.3

발 행 처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발 행 인 서울특별시장

주 최 서울특별시

운 영 제이포더 디자인

문 의 도시경관담당관
운영사무국 010-6679-3905

서울로
미디어캔버스
SEOULLO MEDIA CANVAS

MEDIA ART SEOUL

SEOUL MEDIA SEOUL

장소협찬 우리은행